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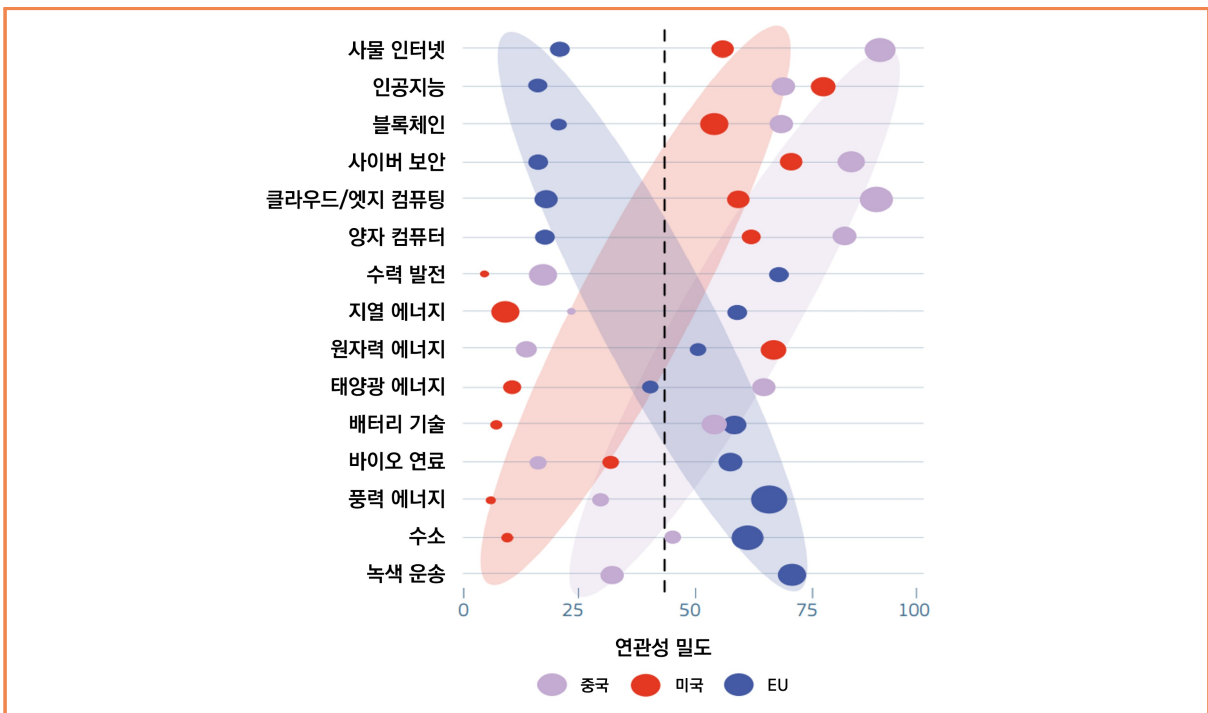
7 EU, 2024년도 과학연구혁신 성과보고서 발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연구혁신 투자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유럽 연구혁신의 3대 과제와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는 ‘과학연구혁신 성과보고서’ 발표(24.6.)

* Science, Research and Innovation performance of the EU 2024

- EU는 격년마다 연구혁신성과 전반을 총망라하는 보고서를 발간 중이며, 2024년 보고서에서는 지난 20년간 유럽연합의 역량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라는 점을 강조
 - GDP 대비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R&I 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녹색 기술의 경쟁력 향상과 연구 성과의 전반적 질적 향상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 EU의 ‘저조한 연구혁신 생태계 활용, 지속적인 연구혁신 격차, 기술 격차’를 3대 과제로 정의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
- EU와 주요 경쟁국 간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두드러지며, 전략적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기술에서 EU의 선도력은 중국 및 미국 대비 취약
 - 특히 AI,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기술, 양자 컴퓨터 등과 같은 디지털 분야의 전략적 생산성 향상 기술에서 EU와 다른 주요 국가 간의 기술 격차가 지속
 - 일부 기술적 진전은 있었으나 미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격적인 시도가 필요함을 방증

〈 복합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대비 EU의 입지 ('19-'22) 〉



출처 : European Commission(2024), Science, Research and Innovation performance of the EU 2024, 그림 1-8.

- 본 보고서는 EU가 다른 글로벌 경쟁국을 대상으로 높은 기술 의존도를 탈피하지 못하면 과학 외교와 국제협력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EU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상호 보완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고 분석
- EU의 전반적 지식 기반은 **글로벌 경쟁국에 비해 다양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특히, 녹색 기술 및 기후변화 저감 기술(CCMTs) 분야에서 우위를 보임
- 주요 혁신국으로 알려진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의 경우 소수의 기술군에 집중한 반면, EU는 다양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보유
- 녹색 인프라 보급, 기후 적응, 에너지 기술, 환경 기술 부문에서 중국과 미국을 앞섬
- EU의 R&I가 직면한 **3개 과제**에 대해 정리하고 **R&I 정책 방향**을 제안

1) 연구혁신 생태계 활용 저조

- EU의 연구혁신 생태계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글로벌 리더십 달성에 제한 요소로 작용
- EU 차원의 정책 조정과 구조 개혁이 필요하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

2) 지속적인 연구혁신 격차

- EU 내 연구혁신 격차는 지역 간 불균형에서 기인하며, 이는 특정 지역의 발전 속도 차이와 중소기업(SME)의 혁신 역량 차이에서 비롯
 - ※ 혁신 선도력은 주로 북유럽과 서유럽이 주도하며, 남유럽과 동유럽은 이를 추격하는 형세
- 연구혁신 격차 해소를 위해 EU의 연구혁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간 협력 강화와 포용적 혁신 환경 조성 필요

3) 기술 격차

- EU는 ICT와 헬스케어 분야의 민간 부문 투자 부족으로 인한 기술 격차가 발생하며, 이는 EU가 중기술(Mid-tech) 분야에 특화되는 상황을 초래
- 첨단 반도체, 생명공학, 우주, 첨단소재 기술과 같은 중요한 기술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술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연구 혁신을 산업적 목표와 결합할 필요
- 디지털 및 녹색 혁신에 전략적 초점을 맞추고,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기술주권 확보 필요

출처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2024.6.27.)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3505